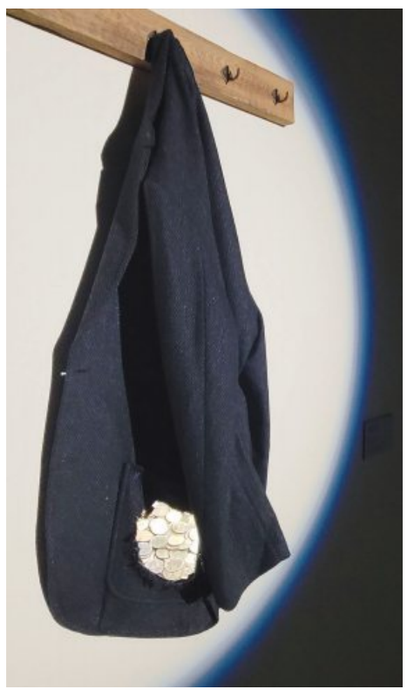
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열리고 있는 이이남 작가 초대전은 유년의 기억을 통해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작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아버지의 호주머니'

'달력의 그림자'

예술가의 작품으로 나를 비춰보는 여정

이이남 작가 특별전, 4월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G,MAP
'책 읽는 소녀' 등 영상·조각 전시…작가와 대화·세미나 예정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웅장한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작가는 말한다. "그것은 내 삶을 통째로 바꾸었다"고. 조선대 미대 재학시절 공모전 대상 상금 300만원을 들고 떠난 유럽여행 당시 만난 마르셀 뒤상의 '샘'은 충격이었다. '모나리자'를 보고서는 "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 앞에서 머물게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유년시절의 기억과 작품 세계의 출발을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놓다니. 마치 오페라의 '서곡'이나 영화의 '인트로'처럼 7분 분량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궁금증을 안고, '이이남'이라는 미디어아티스트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그의 작품 세계에 한발 더 다가가고 싶어진다.

명화를 재해석하는 그의 작업을 말해주듯, 작가는 밀레의 '이삭줍기', 마네의 '풀밭위의 점심' 등 명화의 주인공이 돼 일남이 형과, 삼남이 동생, 고향 담양과 영산강의 추억, 늘 곁에 있었던 죽음을 통해 '삶은 끝없는 상실의 과정'이라 느꼈던 일상, 미디어 아트의 시작 등에 대해 들려준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열리고 있는 이이남 작가 특별전(4월30일까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한 예술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이자, 나의 기억을 함께 소환해 자신을 비춰보는 여정이다.

1층 로비부터 전시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미술관 곳곳에 마치 숨겨놓듯 작품을 배치하는 등 3층에 걸쳐 펼쳐지는 전시는 흥미로운 레이아웃으로 즐거움을 더한다.

1층 '책 읽는 소녀, 기억의 뿌리'에서는 초등학교에 하나 쯤 있었던 '책 읽는 소녀' 석고 동상을 먼저 만난 후 '5학년 이이남'을 찾아 과거로 여행을 시작한다. '80년 오월 18일 날씨 맑음'이라는 글이 쓰인 낮은 문 안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서면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기분이 든다.

바닥에 물결치는 파도의 흔적을 건너 벽에 걸린 횃불에 시선을 주고 나면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을 만난다. 사면을 유리로 감싸 시각적 확장감을 주는 공간에는 42대의 선풍기가 돌아간다. 5월 당시 횃불을 든 시민들과 헬기, 42주년을 맞은 5·18을 표현한 장치다.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건 작가의 어린 시절 흑백 사진, 상장, 동시대를 살았을 또래 아이들이 담긴 사진 등으로 시간 저편의 기억을 소환한다.

2층 '볏단에 숨은 소년'에서는 작가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의 고향 담양을 만난다. 아버지의 양복 주머니 속을 마치 캔버스처럼 활용한 동전 영상과 바닥에 놓인 수백 개의 실물 동전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오래된 나무 의자 위에 놓인 양은 도시락 속엔 푸른 하늘과 흰구름이 흘러간다.

전시장 한 가운데 자리한 '소녀가 보고 있는 책'은 책 읽는 소녀 조각상과 나무 걸상,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 낭독회로 구성된 작품이다. 작가의 일기, 기억 등 5학년의 일상과 꿈을 낭독하는 소녀는 모두가 함께 춤추고, 사랑했다고 노래하지만 정작 화면 속에서는 평화를 깨트리는 군인들의 모습과 헬리콥터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전시장 곳곳에는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은 조각상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화폭에서 빠져나온 듯한 노인의 조각과 그가 마주보는 그림이 어우러진 '달력의 그림자' 등이다.

3층에서 만나는 작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는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도/ 들어온 빛은 변함 없는 것/ 그것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글귀와 함께 만난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인 '넬라 판타지'와 베토벤 '합창 교향곡'이 흐르는 가운데 펼쳐지는 작품은 인상적이다. '뿌리-반디나 페에타'와 천정 위에 매달린 조각 위로 내려앉은 빛은 순식간에 전시장 넓은 공간으로 뻗어나간다. 파도와 물과 눈과, 바람과, 꽃들의 향연 속에 사방으로 흘러가는 빛은 우리를 비추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오는 3월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마련되며 4월에는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G.MAP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평가 모니터링단'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이 공연 품질 향상을 위한 '2023 공연 평가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링 위원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국립남도국악원 상설공연과 특별공연 관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한다.

공연은 연중 3회~5회 가량 희망 하는 공연을 선택할 수 있다. 모니터링 위원들에게는 의견서 제출에 따른 소정의 상품권 지급과 공연 우선 예약 혜택(동행 1인까지)과 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공된다.

취합된 모니터링 의견과 평가 결과는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작품의 질을 높이고 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만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1일까지다. 문의 061-540-4037.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센터)는 일하며 배우는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인턴십프로젝트 참여자는 센터 카페 크리킨디, 열린책방, 생활목공방 3개 작업장 중 한 곳에서 일을 배운다.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각 공방 프로그램 진행 보조를 맡으며 일의 태도와 실무를 익힌다. 또 자신의 관심분야의 멘토를 찾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인턴십프로젝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사이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28일이다. 인스타그램 메시지(@my_samdi), 문의 070-4173-01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열린 발레살롱콘서트 '샘물' 공연 모습.

광주시립발레단 '봄의 목소리'

3월 3~4일 북구문화센터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이 3월 기획공연 '봄의 목소리'로 관객들을 찾는다.

발레단은 내달 3일부터 4일까지(3일 오후 7시 30분, 4일 오후 3시, 오후 7시) 북구문화센터에서 발레살롱 콘서트를 연다. 발레살롱콘서트에서는 무대와 함께 박경숙 예술감독의 해설도 만나볼 수 있어 발레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다.

공연의 첫번째 무대에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선보이지 못했던 '빛과 그림자 속의 발레'를 올린다. 키릴자레스키 광주시립발레단 부예술감독의 러시아 전통 발레 수업으로 평소 무용수들이 공연 전 훈련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무대를 통해 "선생님은 '거울'이고 '두번째 눈'"이라고 언급한 키릴자레스키의 티칭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샘물'을 선보인다.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난도의 리프트와 속도감있는 전개로 청량감을 선사한다.

또 '해적' 중 오달리스크를 3명의 무용수가 선보인다. 러시아 안무가 프티파가 재탄생시킨 대형 발레극으로 튀르키예에 납치된 그리스 여인 메도라와 그녀를 구출하는 해적 콘라드 등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어 빅토르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를 원작으로 한 발레 '에스메랄다' 중 부활절 축제 장면의 한 부분인 '다이애나와 악테옹'을 무대에 올린다. 빠르고 경쾌한 음악에 여신과 사냥꾼 역을 맡은 단원들이 고난도의 테크닉을 펼친다.

키릴자레스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1870년 파리오페라에서 초연된 인형을 만드는 괴팍한 노인 코펠리우스와 인형 코펠리아의 이야기와 '해적' 중 '그랑 파 드트루와'를 펼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도약과 회전 등 최상의 테크닉과 더불어 32회전의 현란한 기교까지 만나볼 수 있다.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전석 2만 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향은 지난 5일 미국 샌 안토니오시에서 초청 공연을 펼쳤다.

"수준 높은 연주…한국인 자긍심 높였다"

광주시향, 창단 이래 첫 美 공연…샌 안토니오시 표창장 받아

창단 이래 처음 미국을 찾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 예술감독 홍석원)이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첫 번째 공연을 마쳤다.

광주시향은 지난 5일 광주시와 미국 샌 안토니오시의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이해 샌 안토니오시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찾았다.

토빈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이날 공연에서 광주시향은 '아리랑'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3곡을 선보였다.

협연자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솔리스트, 실내악 주자,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예담이 나섰다.

론 니렌버그 샌 안토니오 시장은 공연이 끝난 뒤 광주시향에 감사를 표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1700여석의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매워졌고 공연을 관람한 한국 교민들은 "수준 높은 연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게 해줬다"고 후기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향은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6시 '신세계에서'를 주제로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휴스턴대학교 컬른홀을 찾아 두번째 공연을 연다.

6·25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휴스턴 대한민국 총 영사관 주최로 열리며 연주 곡은 샌 안토니오시에서 선보인 3곡과 같다.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니 브로버그가 협연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